

# Cùm

함께 꾸는 우리의 꿈(Cùm)  
Cùm은 라틴어 전치사로 ~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Cùm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하길 꿈꾸며...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마태 1,3)

”

발행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편집 청소년사목국 629-8740 주소 48317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www.puna.kr 인쇄 주보인쇄사(809-2078~9)

## 말씀초대

CÙM 친구들, 안녕?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크게는 서울의 경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부산의 갈맷길과 해안산책로, 제주도의 올레길 등이 있지.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수많은 아름다운 길들이 있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 가자.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러 길들을 소개해주고 있어. 황성군 태기산길, 단양군 단양강간도길

등등. 이 길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지. 그래서 이 길들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길들도 많아. 예를 들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회개의 길 등등이 있지. 사실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 우리는 이런 길들을 더 예쁘게 잘 다듬을 수 있어야 하지. 친구들은 혹시 어떤 길을 닦아보고 싶니? 생각해보며 이번 주일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어보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보자!

### +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 ◎ 아멘.

### 말씀 듣기

1독서 : 이사 40,1-5.9-11    복음 : 마르 1,1-8

천천히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느끼며 읽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주  
Summary

1 독서

주 하느님께서 오신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어.

복음

세례자 요한의 외침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

1  
독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는 한 소리에 대해 예언했어.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3-5절)



이 소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10절) 주님은 왕으로서 상급을 가지고 오시며 당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야(11절 참조). 이스라엘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해야 해.

정  
리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준비하자

CUM 친구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고 외쳤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 그러면서 요한은 오실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회개와 고해성사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쁘고 아름답게 준비해보자.

복  
음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복음에서는 1독서에서 들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 실현되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3-4절) 그리고 요한의 이 선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과정이 곧 회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해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여기서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지난 날의 잘못된 삶을 깨끗이 정리하는 행위를 말해. 이러한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 안의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써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



### ① 양심성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 ① 하느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참으로 믿었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했나요?
- ②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사와 기도를 드렸나요?
- ③ 성당(주일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나요? 억지로 했나요?
- ④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했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도와주었나요?
- ⑤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나요?
- ⑥ 공부할 때 경쟁이나 불평 없이 열심히 했나요?
- ⑦ 주위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며 신자로서 좋은 모범을 보였나요?
- ⑧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나요? 뒷담화를 하지는 않았나요?
- ⑨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 ⑩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나요?
- ⑪ 남을 의심하거나 거짓말을 했나요?
- ⑫ 돈과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는 않았나요?
- ⑬ 어떤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나요?
- ⑭ 누군가로부터 충고나 꾸중을 들을 때 겸손하게 잘 들었나요?
- ⑮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친 적이 있나요?

### ② 통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파하며  
통회의 기도를 바치자!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③ 결심

지은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자!

### ④ 고백

하느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믿고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



---



---



---



---





⑤ 보속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끼친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자!

오소서!  
주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서 오소서!



정오의 Cum toon



정오/홍눈술 잔다르크 @pray\_at\_noon

60' 묵상

기도 시작 전

마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기도

사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때에  
제 마음의 길을 잘 닦고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 마무리

마음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되뇌입니다.

※ 영성체 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N** 대림 시기  
작은 변화! 작은 도전!

겨울철 난방온도 2도 낮추기(따뜻한 옷 입기)  
(냉난방기 1시간 사용은 연간 어린 소나무 98그루를 심어야 할 양입니다.)